

“마음 속 ‘화’ 다스려야 평화가 온다”

틱낫한 스님, 2일 기자회견... 방한 일정 시작

“마음 속 화를 다스려야 진정한 화합이 이뤄집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고통을 떠내놓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합니다.”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평화 운동가이자 수행자 틱낫한 스님. 그가 가장 먼저 한국인에게 강조한 것은 ‘화’였다. 마음의 ‘화’를 다스려야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5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틱낫한 스님은 “불교 안에는 이미 고통의 치유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며 “이러한 불교정신을 잘 살리다면 세상과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현재 남북경색 국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먼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며 “사회 곳곳

의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때 자연스럽게 북한을 보듬는 남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심어린 남한의 노력은 결국 북한에도 전해 질 것”이라며 “남한이 먼저 스스로 내부갈등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통 치유 방법 불교에 있어 남북 문제, 남한의 정성 필요 자살, 일시적 감정...나를 봐야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청년 실업과 자살에 대해서는 “좌절 등과 같은 일시적인 감정은 나 자체보다 결코 크지 않다”며 “스스로 화를 돌아보고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5월 3



틱낫한 스님이 5월 2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선물하고 있다.

~7일 평창 월정사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법문과 함께 마음챙김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했다. <치주상보>

또 8-9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승가를 위한 1박 2일 명상 프로그램’, 12일 서울 동국대에서 ‘마음챙김 수행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0일 부산 범어사에서 ‘평화는 가능하다’를, 13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멈춤 그리고 치유’를 주제로

대중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틱낫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 틱낫한 스님은 “방한 전 태국에서 여야 정당 지도자들과 호흡관 수행을 함께 하며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고 왔다”며 “불교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노덕현 기자 · 사진= 박재원 기자



네팔서 온 ‘평화의 불’ 한반도를 비추다

선묵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 사순례기도회는 5월 2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안철수 국회의원,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이홍구 한국적십자 총재를 비롯해 108산사 순례기도회원, 도선사 대중 등 1만 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네팔 룸비니 평화의 불 한국 이운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를 주제로 평화 기원행사를 봉행했다. 지난 4월 18일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서 채워진 ‘평화의 불’은 중국의 둔황, 서안, 낙양, 정주 등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배편으로 국내에 도착했다.

김주일 기자

3주년 맞은 전법단, 세계로 발 뻗다

4월 30일 기념법회... 국제·어린이청소년전법단 출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전법단 3주년 기념법회 및 국제전법단·어린이청소년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법단장 계성 스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전법에 매진한 전법단이 새롭게 되는 기쁨에 섰다”며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위해 더욱 굳건하게 전법의 길을 걸어가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법단장 계성 스님은 “3년이면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라며 “힘들지만 전법단이 뛰고, 또 뛴을 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국제전법단 단장에 임명된 수암 스님은 “부처님 법에는 국경이 없다”며 “세계 각지에서 국제전법단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전법단 단장 성행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전법단 뿐만 아니라 모든 스님들의 몫”이라며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법단 3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장애인전법단 캄보디아 해외성지순례 고별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기념법회에서는 불자가수 이창환 씨, 아이돌 그룹 트랜드 등의 공연이 신명나게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전법단 3주년 기념법회에서는 30여명의 장애인 불자들이 해외성지순례를 부처님께 고했다.

“국민 행복위한 동반자가 되겠다”

유민봉 청불회장 취임법회... 대행 스님 인연 밝혀

새롭게 개편된 청와대 불자회 신임회장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사진>의 취임법회가 열렸다.

청와대불자회는 5월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와대불자회장 취임법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국민행복을 위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의 증명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정운영의 지근 거리에 있는 여러분(청불회원)들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을 알아보고 지부상소를 올렸던 선조들의 안목과 기개를 갖추었을 때,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민봉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은사처럼 모셨던 봉철 스님과 대행 스님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스님들과의 인연을 술회하는 대목에서는 목이 매인 듯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열한 달 동안 유민봉 대행 스님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미국 유학시절 대행 스님이 미국을 방문



하면 직접 유학생들을 찾아와 생활 속의 법문을 들려주었다”며 “주인공과 나를 돌로 보지 않고, 나와 남을 돌로 보지 않고, 오로지 한 곳에서 나고 한 곳으로 드는 도리를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새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동반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라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항상 유념하여 공적수행과 개인신앙의 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종교간의 화합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신종일 기자

불교 등 7대 종단 종교화합주간 연다

국내 7대 종단이 참여한 종교 간 화합을 꾀하는 행사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오는 5월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13 이웃종교화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개막 심포지엄에서는 유엔 NGO 자문위원 아자 카람 박사가 '유엔과 종교 NGO의 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신종일 기자

10.27 법난법 국회 통과... 피해자 확대는 불발

법난위 소관부처 국방부서 문화부로 이전 가능성 커져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효력 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국회는 4월30일 열린 제31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사무처를 설치하되,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문화체

육관광부와 협의해 중무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던 조계종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계종이 사무처를 꾸리면서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보상 업무를 위해 사무처장이 국방

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처리한다는 부대 의견이 통과됨에 따라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한 개정안은 10.27법난 역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사업을 법률 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혜숙 기자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教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중조사의 대각사상·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이동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불기 2557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중(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중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등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중(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올리며 “용성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시신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한 윤봉길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산도업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추서